

## 한국문화와 역의 삼재론\*

최정준\*\*

### 한글 요약

역의 보편적 수리는 현실에서 문화로 구체화되기도 하고 구체화되지 않기도 한다. 문화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수리는 그저 가능태로서의 원형이라 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문화적으로 구체화된 수리는 현실태로서의 문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문화의 원형이 역사적 유구성을 동반할 때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으로 거론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역의 삼재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국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태극기의 괘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는 한민족의 역사적 유구성의 차원에서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는 우리말인 훈민정음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찰을 통해 한국문화에서 삼재론이 적용되는 방식과 그 철학적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태극기의 태극음양과 4괘의 문양은 상징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한 가운데 위치한 건곤감리의 4괘를 취하였다. 단군이야기와 훈민정음의 경우 천지인이나 천인지라는 삼재가 시공간적 구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군의 경우 천인지의 공간을 설정한 후 천지인의 시간적 흐름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훈민정음의 경우 구체적인 언어의 영역에 천지인의 공간적 우주를 펼쳐서 글자를 만든 것은 일대 혁명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2분법적 어음을 3분법으로 구성한 것은 삼재론의 철학이 적극적으로 문화에 활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무엇보다 문화에 내재된 삼재론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함의는 인간의 위상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본다. 삼재론에서 인간을 천지에서 발생된 인간(범인), 그 천지의 덕과 합하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19일 한중철학회에서 주최한 ‘역과 한국문화(Ⅱ)’에서 발표한 논문을 정리한 것임.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기 위해 학습하는 인간(군자), 천지의 조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간(대인)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지와의 관계에서 발생과 학습과 참여라는 인간상으로 구분해볼 때 훈민정음과 단군신화의 인간은 발생의 차원을 넘어 주체적 참여를 지향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三才, 訓民正音, 太極旗, 檀君, 易, 한국문화

## 1. 서론

역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문화는 자연의 질서를 관찰하여 인간의 질서체계로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sup>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문화원형을 자연의 질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자연의 질서에 착안하여 그 질서의 원리를 추상화하고 체계화하여 담아낸 책이 『주역』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추상적 원리는 보편성을 지닌다. 역학에서 음양이나 삼재는 특정한 사물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이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이 지닌 변화는 한번은 음이 되고 한번은 양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음양론은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다.

음양과 삼재가 보편적 원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원리적인 차원에서만 논의하면 특정한 지역과의 상관성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한국문화를 한국이라는 곳에서 형성된 한국인의 문화라 할 때 그 문화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논의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 문화가 보편적 원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현실에서 구현해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逆으로 한 나라가 어떤 것이 자기나라의 문화라고 주장하거나 선양할 때 그 원천이 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어떤

1) 『周易』, 「賁卦」, “小利有攸往天文也, 文明以止人文也, 觀乎天文以察時變, 觀乎人文以化成天下。”

문화유산을 우리문화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역사에서 실제 문화로서 인식되고 구현되어왔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점은 특히 국가 간 문화소유권에 관한 논쟁이 벌어질 경우<sup>2)</sup> 역사적으로 면면히 계승된 문화적 遺傳과 발전을 확인하기 위한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문화의 원리에 대해 역의 삼재론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본다. 그리고 원리로서의 삼재론이 응용된 구체적 문화로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 우리민족의 조상으로 받드는 단군의 탄생설화, 한국인의 언어인 한글을 가지고 살펴본다.

## 2. 『주역』의 삼재론

『주역』의 ‘삼재’라는 용어는 「계사전」과 「설괘전」에 나오고 유사한 용어로 ‘삼극’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삼재는 문맥상 천지인의 셋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sup>

“『주역』이라는 책은 넓고 크게 모두 갖춰서 하늘의 도가 있으며 사람의 도가 있으며 땅의 도가 있으니, 三才를 겹하여 두 번 하였다. 그러므로 여섯이니, 여섯은 다름이 아니라 삼재의 도이다.”<sup>4)</sup>

삼재는 기본적으로 괘를 상정하여 거론된다. 그러므로 『주역본의』에서

2)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중간 음식·의복·문양·글자에 관한 치열한 문화소유권 논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논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3) 조희영, 본고에 대한 「논평문」; 張其成(北京, 1959~)이 主編한 『易學大辭典』에서는 ‘三才’는 “語出 繫辭 下(10장)”라고 하고 또 “說卦傳(2장) 亦 稱 三才. ‘三才’指 天地人.”이라 하여 ‘삼재’란 말의 출전은 繫辭傳임을 말하고 있다. 『易緯乾鑿度』에서도 ‘三才’가 언급되는 데, 그 내용을 보면 위 계사전의 내용을 孔子曰로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적은 ‘三才’란 『주역』 계사전에서 처음 나왔음을 알려 주고 있다.

4) 『周易』, 「繫辭傳」, “易之爲書也，廣大悉備，有天道焉，有人道焉，有地道焉，兼三才而兩之，故六，六者，非他也，三才之道也。”

“삼획에 이미 三才가 갖추어졌는데 이를 거듭하였으므로 여섯이니, 위의 두 효는 하늘이 되고, 가운데 두 효는 사람이 되며, 아래의 두 효는 땅이 된다.”라고 풀이하였다. 천지인 삼재를 패의 효에 대응하면 위의 하늘과 가운데의 사람과 아래의 땅이 된다.

『주역』의 팔괘는 위의 공간이 하늘이고 아래의 공간이 땅이고 그 가운데 사람이 있다는 3층 구조의 우주를 그려내고 있다. 이는 전지구인이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보편적 공간 구도이다. 그러므로 우주를 3층 구도로 인식한다는 점만 가지고는 어떤 차별성을 말하기 어렵다. 『주역』은 이런 인식을 꽤효라는 부호를 통해 체계화하여 자연과 인문이 변화하는 도리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디는 경전과 차별성을 지닌다.

『주역』에서는 자연과 인문이 음양적으로 변화하는 도리를 3층 구도로 체계화한 천지인 삼재에 대해 구체적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옛날에 성인이 『주역』을 지음은 장차性命의 이치를 순종하려고 한 것이다. 이리므로 하늘의 道를 세움은 陰과 陽이라고 말하고, 땅의 道를 세움은 柔와 剛이라고 말하고, 사람의 道를 세움은 仁과 義라고 말하니, 三才를 겸해서 두 번 하였기 때문에 易이 획을 여섯으로 하여 卦를 이루었고 음과 양으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유와 강을 쓰기 때문에 여섯 자리로 문장을 이루었다.”<sup>5)</sup>

이 부분에서는 천지인 삼재를 구분하여 각각의 차별적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천도의 정립을 음과 양으로 한 것은 氣의 차원이고, 지도의 정립을 유와 강으로 한 것은 質의 차원이고, 인도의 정립을 인과 의로 한 것은 性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삼재가 삼획의 단계에서 각각 둘로 나뉘어 육획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삼재의 창생성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족시키는 개념이 바로 삼극이다.

---

5) 『周易』, 「說卦傳」, “昔者聖人之作易也，將以順性命之理，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立地之道曰柔與剛，立人之道曰仁與義，兼三才而兩之，故易六畫而成卦，分陰分陽迭用柔剛，故易六位而成章。”

“變化는 나아감과 물러남의 象이고, 剛柔는 낮과 밤의 象이고, 六爻의 동함은 三極의 道이다.”<sup>6)</sup>

金相岳은 “육효는, 초효와 이효가 땅이 되고, 삼효와 사효가 사람이 되고, 오효와 상효가 하늘이 된다. 극은 지극함이다. 삼극은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이고, 삼재는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는데, 하늘에는 음양이 있고 땅에는 강유가 있고 사람에게는 인의가 있으므로 삼극의 도라고 하였다.”<sup>7)</sup>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三才가 각기 지니고 있는 태극을 삼극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삼재’는 정립과 성립의 관점에서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포괄한 개념이고, ‘삼극’은 변화와 운동의 관점에서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포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역』에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품질과 사람의 성정을 아울러 삼재라 하고 그 삼재의 변화를 포괄하고 있는 상징체가 육효이다.

이렇게 육효에 내재된 삼재론이 추구하는 인문적 의미에 대해 역에서는 천지가 만물의 화육작용을 장구하고 성대하게 주관하고 이루어내는 간이한 공능을 인간이 습득하여 함께 참여하는데 있다고 한다.

“평이하고 간략함에 천하의 이치가 얻어지니, 천하의 이치가 얻어짐에 그 가운데에 자리를 이룬다.”<sup>8)</sup>

그 가운데 자리를 이룬다는 것은 천지의 가운데 자리를 얻는 것으로 인간이 천지의 이간한 도리를 체득하여 천지의 조화에 지극히 참여함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역』 삼재론의 의미를 대강 정리해볼 수 있다. 자연과 인문이 음양적으로 변화하는 도리를 3층 구도로 체계화하여 삼재라 칭할 수 있는데 삼재의 내용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그리고 태극의 창생성

6) 『周易』, 「繫辭傳」, “變化者, 進退之象也, 剛柔者, 畫夜之象也, 六爻之動, 三極之道也。”

7) 김상악, 『山天易說』, “六爻, 初二爲地, 三四爲人, 五上爲天, 極至也, 三極天地人之至理, 三才各一太極, 而天有陰陽, 地有剛柔, 人有仁義, 故曰三極之道也。”

8) 『周易』, 「繫辭傳」, “易簡而天下之理得矣, 天下之理得而成位乎其中矣。”

이 삼재를 다시 둘로 분화시켜 육효와 육효의 변화를 이룬다. 이런 창생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삼재는 삼극이라고 표현된다. 삼재는 그 정립과 관찰의 차원에서 순서를 달리하기도 한다. 정립의 관점에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순서이지만 그 관찰의 차원에서는 하늘과 사람과 땅의 순서가 된다. 하늘은 기운의 변화가 중요하고 땅은 토양의 품질이 중요하고 사람은 마음의 성리가 중요하다. 이 세이 어우러져 우주의 변화가 진행된다는 것이 삼재론의 관점이다. 그리고 역의 삼재론의 추구하는 인문적 의미는 천지의 간이한 도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인간을 추구함에 있다.

### 3. 한국문화에 내재된 삼재론

#### (1) 태극기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배안에서 새롭게 제작했다는 우리나라의 국기는 그 전에 이루어 몇 차례의 논의 및 시안(試案)과 결부된 성과이다.<sup>9)</sup>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의 도안은 태극음양과 8괘 중 4괘가 핵심이다. 중앙의 태극음양권에서는 음양의 원리를 논의해볼 수 있다. 주위의 4괘는 그 원천이 복희선천팔괘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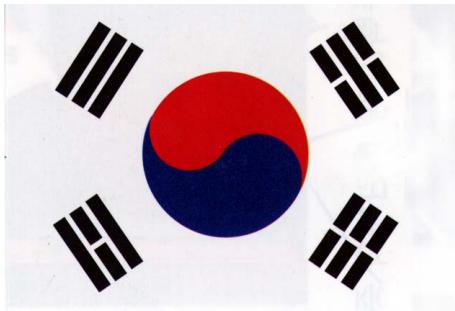
팔괘도는 도상의 관점에서 볼 때 횡으로 되어있는 次序圖가 있고 동근 원형으로 구성된 圓圖가 있다. 그리고 원도는 선천팔괘도와 후천팔괘도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태극기의 4괘의 출처에 대해서는 횡도든 원도든 상관 없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4괘의 위치와 태극음양권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해본다면 태극기의 4괘는 선천팔괘도에서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근거가 되는 도형은 선천복희팔괘도이다.

이와 관련해 먼저 4괘의 위치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고찰해보면 김경수의 제안에 의해 중앙의 태극과 주위의 4괘로 정해졌다고 하며 이에 더해

9) 최정준, 「태극기에 관한 역사적 검토」, 『한국사상사학』 47집, 한국사상사학회, 2014 참조.

시각적 명확성과 모방의 편리성 때문에 8괘 중 4괘만을 사용하여 건곤감리를 사각(四角)에 위치시켰다. 주위에 4괘를 위치시킨다는 발상과 그 위치를 4각에 위치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태극의 원과 원을 반분하는 곡선의 양끝의



〈그림 1〉 太極旗

접점이 각각 건(乾)과 곤(坤)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 지점이 양극(陽極)과 음극(陰極)에 해당한다. 8괘 중 단지 4괘만 쓰고 4괘를 四角에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각도가 기울어졌으며 각도가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태극도형에서의 두 극점의 위치는 4괘의 기울어진 각도를 그대로 따라갔다.<sup>10)</sup>

삼재론과 관련해볼 때 4괘의 원형은 복희선천팔괘이고 복희씨가 팔괘를 고안할 때 관찰하여 반영한 것이 바로 상중하의 3층 공간이며 팔괘의 세획은 이 3층의 천지인을 상징하므로 태극기는 삼재론적 원리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희선천팔괘의 도상에서 볼 때 방위의 中正여부를 기준으로 건곤감리과 진태손간의 두 부류로 구분해볼 수 있다. 진태손간은 간방(間方)이고 건곤감리는 정방(正方)이다. 정방은 가로 세로로 정 가운데 위치하므로 중방(中方)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팔괘 가운데 4괘를 취할 때 천지와 일월이라는 대자연의 조화라는 의미 외에도 도상으로 볼 때 정 중앙의 위치라는 中의 의미가 도출된다. 태극기가 일종의 도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 또한 中을 중시한 의미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국기 가운데 유일하게 팔괘를 그 원형으로 삼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과 인문의 가치를 상징하는 정 가운데 위치한 패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10) 최정준, 「태극기에 관한 역사적 검토」, 『한국사상사학』 47집, 한국사상사학회, 2014 참조.

삼재론적 문화라 할 수 있다.

## (2) 단군신화와 한국의 삼수론

『삼국유사』의 단군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 이야기는 전형적인 삼재론적 구도로 짜여있다. 이야기의 대강은 이렇다. 하늘나라에 임금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아래 천하에 자주 뜻을 두면서 인간 세상에 가길 희구하였다. 환인이 아들의 뜻을 간파하여 허락하면서 인간 세상에 가는 목적과 비전을 제시한다. 그 목적과 비전이 理化와 紅익인간이다. 인간세상을 잘 다스려 순리대로 교화를 하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임무였다. 그리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방편도 마련해주었다. 그래서 결국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거주지를 마련한다.

한편 땅에서는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들 역시 사람이 되길 소원하였다. 일정한 기간 절제의 시험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암컷인 곰은 결국 사람이 되었다. 다시 한 번 사람이 된 곰은 다시 여인의 몸으로 잉태하길 기원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환웅은 여인과의 결합을 위해 사람으로 가화(假化)하여 둘이 합일하여 단군이 탄생한다.

이 이야기는 공간적 구성이나 시간적 구성이 모두 3으로 짜여있다. 공간적 구성상 하늘은 신들의 영역이며 땅은 동물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 중간이 인간의 영역이다. 시간상 구도로 보면 3단계의 설정이다. 먼저 1단계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영역을 설정해놓았다. 2단계는 하늘의 신이 인간을 지향하고 땅의 동물도 인간을 지향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하늘의 환웅이 인간 세계를 희구하고 땅의 응과 호도 인간이 되길 소원한다. 마지막 3단계는 신성과 동물성이 합일을 통해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킨다. 하늘의 영역에서 지향하는 의지와 땅의 영역에서 지향하는 소원이 합일하여 단군이라는 이상적인 리더를 탄생시킨다.

3이라는 숫자와 관련해보면 사실 단군신화는 우리의 문화 깊숙이 자리한 ‘三數論’ 혹은 ‘三元思想’, ‘三神思想’<sup>11)</sup>을 고리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천부경』이나 민족 고유의 사상으로 알려진 풍류도 등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천부경』은 문현상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에 실린 내용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12)</sup> 『천부경』의 삼극이라는 용어는 『주역』의 삼재론과 상통하는 의미로 읽을 수 있고 그 맥락 또한 대동하다. 문현에 관한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그 문맥만을 읽어보자면 『천부경』에는 우주의 본체 및 작용 혹은 구성과 작용에 대한 철학이 3수로 진행되므로 전형적인 삼재론이라 할 수 있다. 1-3-9-27-81로 진화하는 수리체계는 『주역』의 1-2-4-8-16-32-64로 진화하는 수리체계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sup>13)</sup> 천지가 합일되는 지점을 사람 속에 두는 것도 『주역』 삼재론의 철학적 의미와 상통한다. 최치원이 「鸞郎碑序」에서 소개한 우리 고유의 사상인 風流는 사상적 차원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 유불선의 삼교를 회통하고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을 접하며 변화시킨다는 사상으로 요약하였다. 가정에 들어오면 효도하고 나가면 나라에 충성함은 공자의 가르침과 같고, 무위의 일에 처하여 말없는 가르침을 행함은 노자의 종지와 같으며, 모든 악함은 짓지 말고 모든 선함을 봉행함은 석가모니의 교화와 같다고 하였다. 東人의식을 강조한 최치원이 밝힌 풍류도의 三教 또한 삼수론적 구도에서 해석해볼 수 있으므로 넓게 보면 통칭 삼재론과 상통한다.

『주역』의 삼재론적 관점에서 단군신화의 의미를 읽어보면 그 철학적 의미가 더 진지해진다. 단군은 하늘의 신과 땅의 동물이 만나 재탄생한 혼종(混種)이라는 면에서 융합적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의 배풀고자 하는 의지와 땅의 생육하고자 하는 소원이 적극적으로 지향하여 만난 결과

11) 전통문화에서 3과 관련된 사상은 강동원(『韓國思想史에 나타난 三元의 思惟體系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박태봉(『韓國의 思想과 文化에 나타난 三數原理研究: 현대적 活用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송재국, 「『周易』의 六爻 重卦 構成 原理: 三才論과 陰陽論을 中心으로」, 『동서철학연구』 55집, 한국동서철학회, 2010, 119-149면 참조.

12) 전병훈, 금장태 해제,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1983.

13) 최정준, 「천부경의 역학적 의의」, 『선도문화』 5집,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2016 참조.

가 새로운 인간, 향상된 인간이다. 향상된 인간과 관련해볼 때 『주역』의 삼재론이 추구하는 인문적 정신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주역』에서는 천지의 간이한 도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향상된 인간을 말하였다. 이에 비해 단군은 천지가 적극적으로 지향하여 결합된 존재로서의 향상된 인간을 말하고 있다. 『주역』에서는 인간이 천지의 도리를 터득하여 참여하는 방향으로 말했다면 단군신화에서는 천지가 지닌 덕성을 중화하여 완성한 인간형으로 말하고 있다. 천지와 인간이 지향하는 주체와 방향을 달리 설정하였지만 그 종국적 의미는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새롭게 완성된 인간은 다름 아닌 동류인 인간에게 널리 이로 움을 베푸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런 단군신화의 의미를 『주역』의 益卦와 연관하여 살펴보자. 益卦는 상괘가 巽이고 하괘가 震으로 風雷益卦이다. 먼저 착안해볼 것은 「단전」의 ‘損上益下’나 ‘自上下下’는 모두 위에서 아래로의 이동이라는 점이다. 이를 卦變의 관점에서 보면 天地否卦의 사효와 초효의 바뀜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바뀜은 둘이 하는 것이기에 아래의 음이 위로 올라간 점도 수반되지만 「단전」에서는 천지비괘의 사효가 초효로 옮겨내려오는 것에 주목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거나 ‘위의 것을 덜어서 아래에 이익을 주었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단전」에서는 그 이익의 규모에 관하여 ‘그 이익됨이 방소가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익을 옮겨주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표현은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인간세계에 내려온 弘益人間의 컨셉과 일치한다.

또한 「계사전」에서 익쾌에 대해 木으로 취상하여 농기구를 발명하였다는 내용과 익쾌 「단전」의 木道를 연관하여 볼 때 익쾌를 이루고 있는 팔괘의 손쾌와 진쾌는 둘다 木으로 취상할 수 있고 「설쾌전」에서도 진쾌와 손쾌는 모두 東方과 東南方이라고 하였으니 익쾌 「단전」의 木道에 대해 역학에서 木으로 배합되는 東方의 의미로 변통하여 읽어볼 수 있다. 세상을 널리 유익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동방의 정신문명이 펼쳐지는 의미를 ‘木道乃行’이라고 변통하여 이해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흥익인간이라는 이념으로 인간세상을 경영하라는 사명을 펼치기 위해 새롭게 탄생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단군이라면 단군은 천지와의 합덕을 전제로 한다. 익쾌「단전」의 ‘하늘이 베풀고 땅이 내야만 그 유익함이 끝이 없다’는 구절은<sup>14)</sup> 하늘에서 환웅이 베푼 생명의 씨앗이 응녀를 통해 나온 단군의 탄생과 그 사명을 떠올리게 한다.

### (3) 훈민정음[한글]

조선시대 세종은 중국 음운학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음운을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28자의 한글로 만들었고 이에 대한 해설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훈민정음』을 편찬하였다. 『훈민정음』에는 한글을 만들게 된 이유와 원리와 사용법이 해설되어 있다. 훈민정음 창제의 이유 내지 문제의식은 우리의 어음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한자로 우리말을 그대로 적는데 사용하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이는 곧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새로운 표기 수단의 필요성으로 직결된다.

『훈민정음』에서 밝힌 제자의 철학적 원리는 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음양과 삼재와 오행의 원리이다. 이에 대해 제자해 첫머리에 성음의 분야에도 음양오행이 기본적 원리로 작용된다는 관점을 밝혀놓았다.

“천지에 생명 있는 부류가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랴! 그러므로 사람의 성음에도 음양의 이치가 있는데 사람이 살피지 못할 따름이다. 이제 정음을 제작함에 애초부터 지혜로 만들고 힘써 찾은 것이 아니다. 단만 그 성음을 근거로 그 이치를 다한 것일 뿐이다.”<sup>15)</sup>

이런 관점은 송대 체계화된 태극 음양 오행의 이론을 언어관으로 받아들

14) 『周易』, 「益卦」, “天施地生 其益无方.”

15) 『訓民正音』,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인 것으로<sup>16)</sup> 훈민정음의 창제도 성음에 근거하여 이런 이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다.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는 기본적으로 象形이다.<sup>17)</sup> 초성을 이루는 자음의 경우는 조음위치와 방법을 상형하여 기본이 되는 다섯 초성자인 그, 뉴, 모, 스, 오을 만들고 발음의 세기 정도에 따라 가획과 이체의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오행이론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중성을 이루는 모음의 경우는 천지인을 상징하여 기본 모음자인 ㅏ과 ㅡ와 ㅣ를 만들고 이들의 조합으로 제자하였다. 모음구성의 대전제는 삼재론이다. 하늘을 상징한 ㅏ과 땅을 상징한 ㅡ과 사람을 상징한 ㅣ의 세이 조합하여 모음을 만들기 때문에 삼재는 한글 모음의 대전제로서의 원리이다. 천지인 삼재가 조합되지 않으면 온전한 모음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음양론을 사용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구분하였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는 훈민정음에서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라는 기본모드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한글 구성의 대전제가 삼재의 원리임을 나타낸다.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합해서 글자를 이룬다.”<sup>18)</sup>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라는 글자의 구성형식은 역의 삼재론에 입각한 것이며 한글이 지닌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강신항은 중국음운학의 경우 모든 자음을 성과 운, 즉 어두자음과 그 나머지의 요소로 분류하던 2분법이었는데 비해 훈민정음의 어음을 초·중·종 3성의 3분법으로 한 것은 특기할 사실이라고 하였다.<sup>19)</sup>

어두자음과 그 나머지라는 2분법은 대부분 언어를 기록하는 글자에서의

16) 곽신환, 『『훈민정음 해례』에 반영된 성리학의 영향 - 태극·음양·오행·삼재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 2016 참조.

17) 『訓民正音』,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18) 『訓民正音』,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19)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출판부, 1991, 65쪽.

전형이다. 이런 전형을 깨고 초중종이라는 3분법을 언어의 영역에서 구사한 것은 천지인 삼재론에 대한 철저한 철학적 이해와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초성의 발동하는 의미는 하늘의 일이고 종성의 그쳐서 정해지는 의미는 땅의 일이며 중성이 초성의 생겨남을 받들어 종성의 마침을 이어주니 사람의 일이다.”<sup>20)</sup>

언어학적 관점에서 음이 발생하고 발생한 음이 그쳐서 정해지는 그 중간에 발생한 음을 계승하여 완성으로 이어주는 전 과정을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일로 3분하여 구분하여 설정한 것은 역의 삼재론을 언어학에 충실히 적용한 결과이다.<sup>21)</sup>

『훈민정음』에서는 이를 다시 동정론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한다.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를 가지고 말하면 움직임과 고요함이 상호 균거가 되며 음양이 사귀면서 변화하는 의미가 있다. 움직임은 하늘이고 고요함은 땅이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아우른 것은 사람이다.”<sup>22)</sup>

움직임이 하늘이고 고요함이 땅이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아우른 것이 사람이다. 글자의 구성을 2분법이 아닌 3분법으로 혁신하여 구체화한 것은 동정론의 응용발전이다.

그래서 종성의 경우 초성을 다시 사용하는 구상을 한 것이다. “종성에 초성을 다시 사용한 것은 움직여 양이 됨은 乾이고 고요해서 음이 됨도 또한 乾이기 때문이다.”<sup>23)</sup>라고 하여 종성을 초성에서 사용한 동일한 자음의 이음

20) 『訓民正音』, “初聲有發動之義, 天之事也。終聲有止定之義, 地之事也。中聲承初之生接終之成, 人之事也。”

21) 성명학활용의 관점에서 볼 때도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의미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22) 『訓民正音』, “初中終合成之字,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 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 動者天也。靜者地也。兼互動靜者人也。”

23) 『訓民正音』, “終聲復用初聲者, 以其動而陽者乾也, 靜而陰者亦乾也。”

으로 보고 따로이 글자를 만들지 않았다.<sup>24)</sup>

그런데 훈민정음에서의 삼재론은 글자의 전체적 3분법적 구도라는 점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점은 인간의 위상과 역할에 찍힌다.

“자운의 요체는 중성에 있으니 초성과 종성이 합해 음을 이루니 마치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더라도 그 마름질하여 완성하고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과 같다.”<sup>25)</sup>

한글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하늘과 사람과 땅의 위치적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용하였다. ‘중’이라는 글자를 놓고 분석해보면 ㅈ은 하늘에 해당하고 ㅊ는 사람에 해당하고 ㅇ는 땅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ㅊ는 초성인 ㅈ과 종성인 ㅇ을 연결하여 온전한 발음을 가능하게 해준다. 초성인 ㅈ과 종성인 ㅇ만으로는 원하던 글자와 소리를 완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운의 요체가 중성에 있다고 한 것이며 이는 『주역』에서 말하는 천지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삼재론적 역할과 상통한다.<sup>26)</sup>

#### 4. 삼재론의 철학적 의미

천지인에 관한 언급은 『노자』에도 등장한다. 『노자』에서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하였다. 천지인을 언급하지만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지향점은 무위이고 자연이다. 불교에서도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목표가 유한에 구속된 인간 고통의

24)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출판부, 1991, 66쪽.

25) 『訓民正音』, “蓋字韻之要在於中聲，初終合而成音，亦猶天地生成萬物而其財成輔相則必賴乎人也。”

26) 『周易』, 「泰卦」, “象曰，天地交泰，后以，財成天地之道，輔相天地之宜。以左右民。”

해방인 해탈이다. 이에 비해 유학에서는 천지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현실적 존재감과 인문적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 문화에 깊이 작용한 역의 삼재론이 어떤 철학적 의미가 있는지 삼재론의 전거인 『주역』을 경으로 존중하는 학파인 유학과 연관하여 그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유학의 ‘유(儒)’란, 글자 그대로 수인(需人)으로 필수(必須)적인 사람(人)이라는 의미이다. 수(需)는 주역 64괘에 들어있는 수천수괘(水天需卦)에서 그 깊은 의미를 만날 수 있다. 수천수(水天需)는 물 기운이 하늘 위에 있는 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상이다.<sup>27)</sup> 생물이 생명수인 비를 기다리듯이 수(需)란 일차적으로 ‘기다림’이라는 뜻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이기에 음식과 같은 ‘필수’라는 의미를 지닌다.<sup>28)</sup>

음식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수인(需人)이고 유(儒)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모름지기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바라는 군자로서의 유(儒)가 진정한 유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함을 권하였다.<sup>29)</sup> 유(儒)라는 의미에서 드러나듯이 유교는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기에 유교가 현실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이 무색하다. 유학이 세계와 세계의 변화에 대해 늘 고민하는 이유이다.

전통적으로 유학이 공자를 조종으로 삼는다고 할 때 공자는 다시 요순(堯舜)을 조종으로 삼고 있다.<sup>30)</sup>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자리를 물려주며 전한 핵심은 중(中)을 잡으라는 것이었다.<sup>31)</sup> 그리고 『주역』에서는 요순 이전의 성왕(聖王)의 도(道)의 연원을 황제씨·신농씨를 거슬러 올라가 복희씨로부터 언급하였다.<sup>32)</sup>

27) 폭우가 내려 멈추어 있으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패에 음식의 의미가 중요하게 들어있다는 점에서 비를 생물들의 필수적 음식으로 보고 비를 기다리는 상으로 취상할 수 있다.

28) 『周易』「需卦」, “象曰, 雲上于天, 需, 君子以飲食宴樂。”

29) 『論語』, 「雍也」, “子謂子夏曰: 女爲君子儒, 無爲小人儒。”

30) 『中庸章句』 30章, “仲尼祖述堯舜, 憲章文武; 上律天時, 下襲水土。”

31) 『論語』, 「堯曰」, “堯曰 啓, 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尤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

복희씨가 우주의 공간구조와 시간변화의 원리를 담으려 창안한 팔괘(八卦) 부호는 문자 이전시대의 의사소통체계, 즉 또 하나의 언어였기에 그 안에는 사상이 담겨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들어있는 팔괘부호는 모두 세 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위의 획은 하늘을 상징한 것이고 맨 아래의 획은 땅을 상징한 것이고 가운데는 사람을 상징한 것이다. 상중하(上中下)의 천지인(天地人)은 상천(上天)과 하지(下地), 중인(中人)이다

유(儒)를 수인(需 ䷄)이라 할 때 수(需)가 현실참여의 의미라면 인(인)은 팔괘의 구성과 연관성상에서 그 자체가 인중(人中)의 가운데라는 뜻을 지닌다. 가운데가 中이고 이 中이 인간의 위치라는 점은 『주역』의 「십익」이나 후대 연구자들의 풀이를 보면 잘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乾卦의 구삼효에 대해 상수를 심각하게 사용하지 않는 정이천도 人位라고 표현하면서 그 의미를 풀고 있다.<sup>33)</sup> 『주역본의』에서는 「계사전」의 천도와 인도와 지도에 대한 풀이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풀고 있다.

“삼획이 갖추어짐에 삼재가 중첩된 것이다. 그러므로 6이니 위의 두 효는 天이고 가운데의 두 효는 人이고 아래의 두 효는 地이다.”<sup>34)</sup>

中은 도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저 형식적으로 가운데라는 뜻이지만 이 도상이 의리와의 변통의 근거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도상에 의리가 붙으면서 인문학적 의미론으로 전개된다. 이른바 『주역』의 ‘관상계사(觀象繫辭)’가 그것이다. 8괘나 64괘라는 괘상에 의리를 붙이면서 인문적이고 철학적 담론이 가능해진다. 『주역』의 핵심사상이 中이라는 점은 이와 무관치 않다.

32) 『周易』, 「繫辭下傳」 2章,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倚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作結繩而爲罔罟, 以佃以漁, 蓋取諸離. 包犧氏沒, 神農氏作, 斷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教天下, 蓋取諸益.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 蓋取諸噬嗑.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33) 『周易傳義』, 「乾卦九三爻」, “三雖人位.”

34) 『周易本義』, 「繫辭下傳」 10章, “三畫已具, 三才重之, 故六而以上二爻爲天, 中二爻爲人, 下二爻爲之.”

실제 도상적으로 가운데 위치하지 않은 효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교 핵심사상의 중(中)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볼 수도 있다. 도상적으로 가운데라는 쉬운 의미에서 점점 인문적 의미가 도출되고 중용, 중심, 근본 등등의 깊은 철학성으로 확충되면서 유학의 중(中)사상은 발전을 거듭해간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유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념인 懟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상하가 아닌 상중하라는 팔괘의 구성에서 사람이 차지한 가운데라는 위치는 유학 핵심사상인 서(懥)의 도상학적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은 위와 아래를 소통하는 중심이자 주체이다. 팔괘에서 상과 하라는 회의 취지는 위와 아래로만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놓고 보면 左편과 오른편도 되고 전후로 놓고 보면 앞과 뒤도 된다. 그리고 그 상하 전후 좌우의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천지인 삼재로 보면 사람의 자리이자 가운데이다.

『대학』에서 서(懥)의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되는 혈구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위 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아래 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아래 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위 사람을 섬기지 말며, 앞 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뒤 사람을 이끌지 말고 뒷사람에게서 싫었던 바로써 앞 사람을 따르지 말며, 오른 편 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왼 편 사람을 사귀지 말고 왼 편 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오른 편 사람을 사귀지 말 것이니, 이것을 혈구지도라 한다.”<sup>35)</sup>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sup>36)</sup> 충고를 깨우쳐 현재 눈앞의 타인에게 실현하라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또 다른 타인으로부터 몸소 겪었던 자신의 경험과 그에 따른 감정이 선행하기

35) 『大學』, “所惡於上, 毋以使下, 所惡於下, 毋以事上, 所惡於前, 毋以先後, 所惡於後, 毋以從前,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所惡於左, 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也.”

36) 『論語』, 「衛靈公」, “其所不欲勿施於人.”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혈구지도는 단순한 둘 사이의 즉각적 발현이라기보다는 셋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운데 설정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상중하라는 팔괘의 구성에서 사람이 차지한 가운데라는 위치는 유학 핵심사상인 서(恕)의 도상학적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학사상에서 핵심으로 거론되는 충서의 논리가 삼재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 5. 결론

이상의 한국문화에 내재된 삼재론은 문화를 구성하는 유형상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삼재의 원형 그대로를 문화에 수용한 태극기의 경우이다. 태극기의 태극음양과 4괘의 문양은 상징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한 가운데 위치한 건곤감리의 4괘를 취하였다. 둘은 천지인이나 천인지라는 삼재가 시공간적 구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단군 이야기와 훈민정음의 경우가 그것이다.

단군의 경우 천인지의 공간을 설정한 후 천지인의 시간적 흐름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훈민정음의 경우 구체적인 언어의 영역에 천인지의 공간적 우주를 펼쳐서 글자를 만든 것은 일대 혁명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2분법적 어음을 3분법으로 구상한 것은 삼재론의 철학이 적극적으로 문화에 활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문화에 내재된 삼재론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함의는 인간의 위상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본다. 주역의 경우 인간은 천지가 사귀어서 나온 존재이다. 그런 인간이 천지의 덕과 합일하는 인간을 희망한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천지의 생화작용에 참여하여 과불급을 조절하는 중용을 실천하는 인간으로 향상되니 이것이 삼재론에서 가장 강조되는 인문적 의미이다.

단군은 단순히 천지의 요인이 혼합된 사람이라는 발생론적 의미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하늘과 땅이 의지적으로 소원하며 지향한 향상된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다. 훈민정음의 경우도 자운의 요체가 중성에 있다고 한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천지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삼재론적 역할과 상통한다.

삼재론에서 인간을 천지에서 발생된 인간, 그 천지의 덕과 합하기 위해 학습하는 인간, 천지의 조화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중용을 실천하는 인간의 셋으로 구분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천지와의 관계에서 발생과 학습과 참여라는 차원으로 구분해볼 때 훈민정음과 단군은 단순한 발생의 차원을 넘어 천지조화에 주체적 참여를 지향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 참고문헌

- 『周易傳義』
- 『論語』
- 『中庸』
- 『訓民正音』
- 『三國遺事』
- 강동원, 『韓國思想史에 나타난 三元的 思惟體系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출판부, 1991.
- 곽신환, 『『훈민정음 해례』에 반영된 성리학의 영향 - 태극·음양·오행·삼재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 2016.
- 박태봉, 『韓國의 思想과 文化에 나타난 三數原理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송재국, 『『周易』의 六爻 重卦 構成 原理: 三才論과 陰陽論을 中心으로』, 『동서철학』 55집, 한국동서철학회, 2010.
- 전병훈, 금장태 해제,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1983.

- 최정준, 「태극기에 관한 역사적 검토」, 『한국사상사학』 47집, 한국사상사학회, 2014.
- \_\_\_\_\_, 「천부경의 역사적 의의」, 『선도문화』 5집,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2016.
-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단군천부경공개 100주년기념 천부경학술대회』, 2021.

[Abstract]

## Three Basis Theory(三才論) of Iching in Korean Culture

Choi, Jeong Jun\*

In reality, universal numbers-Principle of Iching may or may not be embodied as a culture. numbers-Principle, which is not culturally embodied, can only be said to be a prototype as possible. On the other hand, culturally embodied numbers-Principle can be said to be the prototype of culture as a reality. Furthermore, when the original form of this culture is accompanied by historical permanence, it can be mentioned as a cultural characteristic of the country.

In this paper, I looked at Korea's representative cultural heritage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basis theory(三才論) in Iching. First, we looked at the national flag, Taegeukgi(太極旗), which can be said to be the face of the nation. The second was to focus on Dangun(檀君) mythology in terms of the historical structure of the Korean people. Third, we looked at the Korean word Hunminjeongeum(訓民正音).

Through consideration, the method and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applying the theory of three basis in Korean culture were derived. The Taegeukgi(太極旗)'s Taegeuk(太極) yinyang(陰陽) and four gwaes(卦) patterns used the symbolic original form as they were, and at the same time, took four gwaes(卦) of Geongongamri(乾坤坎離), located in the middle. In the case of DangunDangun(檀君) Story and Hunminjeongeum(訓民正音), three basis theory(三才論), Cheonjiin(天地人) and Cheoninji(天人地), are used as a temporal and spatial composition. In the case of Dangun(檀君), the story was composed of the time

---

\* Professor, Dongbangculture University.

flow of Cheonjiin(天地人) after setting the space of Cheoninji(天人地). In the case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it is a revolutionary idea to create letters by spreading the spatial universe of Cheoninji(天人地) in the specific area of language. The idea of changing the two-division letter to three-division method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active use of the philosophy of three basis theory(三才論) in culture.

Above all, I think the most important philosophical implication of the three basis theory(三才論) inherent in culture lies in understanding human status. In the three basis theory(三才論), humans can be divided into humans(Ordinary people) from heaven and earth, humans(gunja:君子) who learn to combine them with the virtues of heaven and earth, and humans (magnanimous man)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harmony of heaven and earth. In this way, when divided into the human image of Birth, learning, and participation in relation to heaven and earth, it is meaningful that the humans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and Dangun(檀君) Myth have an active meaning of emphasizing subjective participation beyond the dimension of Birth.

**Key Words :** Three Basis Theory(三才論), Hunminjeongeum(訓民正音),  
Taeguekgi(太極旗), Dangun(檀君), Iching, Korean Culture

논문접수 : 2022.02.14.

심사완료 : 2022.03.21.

제재확정 : 2022.03.29.